

다. 佛像外의 發見品은 다음과 같다.

八、銅製香奩

身臺가 遊離되었고 身部는 融解되어 原形을 알 수 없으나 臺는 上徑 三·五cm, 下徑 一三·六cm, 高一·一cm로 밑이나 判形으로 擴大된 圓筒形이다.

九、欄竿形金具

遊離된 二片의 金具로서 其一은 ㄱ形으로 長邊 一三·九cm, 短邊 五·八cm, 高二·八cm이다. 兩隅角의 連接部는 上部에서 圓形部材가 十字形을 이루었고 各隅角에는 方柱가 세워졌다. 各面은 上下二段으로 區分하여 長邊에 上下 九個씩 短邊에 各各 上下 三個씩의 透孔이 있다.

다른 하나는 長七·五cm, 高二·四cm의 半月의 橋樑形으로 兩側에 上下二段에 童子柱가 있는 欄竿이 設置되었고 上面은 橫으로 凸凹을 交替로 나타내고 있다.

이 金具가 무엇에 使用된 것인지 곧 알 수 없었으나 或 銅裂 小塔의 一部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외에 이 寺域內에서 高約二四cm의 石佛頭가 發見되었다. 이 佛頭는 大破되어 顔面의 細部를 알 수 없으나 매우 均衡있는 輪廓을 볼 수 있어 그 造成 또한 統一新羅時代로 推定되었다.

이와같은 一連의 遺物을 綜合하면 이 伽藍의 創建이 相當히 오래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한데도不拘하고 大典寺에 關한 記錄이 傳하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으며 앞으로 寺域全體에 對한 좀 더 細密한 調査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陰城 平谷里寺址와 石佛坐像

——陰城邑內의 佛蹟 其二——

鄭 永 鎬

一、寺 址

陰城邑 平谷里 基谷部落이 古刹址로 알려져 있어 調査한 바 있다. 이 部落은 邑內에서 約二km 되는 곳으로 옛부터 刹地(寺址) 或은 향교터 (鄉校址)라 불리운다는데 洞里에서 傳聞한 바에 依하면 本時 羅代의 大刹址이나 後世에 鄉校를 이곳에 세웠으며 現在 邑內 秀峰國民學校 뒷 畝의 鄉校가 韓末에 이곳에서 移建된 것이라 한다. 한편 調査에 同行한 陰城教育廳의 金富年先生과 秀峰國民學校의 安孝景先生께서도 같이 證言하고 있다. 그런데 東國輿地勝覽(卷六十四陰城縣 學校條)에도「鄉校在縣東一里」라 있어 鄉校의 位置가 東쪽임이 確實한데 現在의 鄉校는 邑에서 北쪽이 됨으로 同記錄과는 맞지 않으며 따라서 上記 基谷部落이 鄉校의 原位置임에만은 틀림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部落에서 現位置로 移建했다는 것과 「향교리」라는 別稱이 맞는 이야기인데 그 移建時期는 어느 때였는지 알 수 없다. 韓末에 移建했다는 것은 洞民들의 口傳뿐으로 아직 記錄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正確한 말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그리고 또한 이 部落이 新羅時代의 寺址란 것은 여기에 關한 記錄은 없으나 口傳과 現存 遺物 등으로서 推測케 하고 있다. 卽 遺物로는 몇 家戶에 數枚의 長大石이 있으며 特히 平谷里 四四二의 一番地 廉鍾敏氏宅에는 遺物基壇部에 圓座의 柱礎石을 넣어 積土하였는데 方形의 中央에 三段三輪의 圓座를 刻出한 樣式手法이 典型的인 統一新羅時代의 柱礎石으로서 慶州一圓에 散在한 羅代의 他例에 比하여 조금도 遜色이 없다고 보겠다. 廉氏의 말에 依하면 이 柱礎石은 家屋建築時臺地整理 때 出土된 것이라 하며 아직도 많은 同類의 柱礎石이 埋沒되어 있음을 것이라 하는데 더욱이 注目할 말은 이 地點에서 無數한 瓦片이 出土된 中「威通六年」이란 銘瓦가 있었다는 것이다. 威通六年인지 그 六年代의 記憶은 뚜렷치 않으나 「威通〇年」은 틀림 없었다고 한다. 主人인 廉氏나 當時 役事를 돕던 部落民들도 書堂을 다니고 있어서 漢字는 判讀할 수 있었다 하며 또 現在 廉氏는 洞里有志로 識層에 屬하므로 上記 瓦銘의 出土는 틀림 없는 것 같다. 이 瓦片은 그後 어떻게 되었는지 無關心으로 保存되지 않았으나 出土된 事實만은 아직도 生生하게 傳해지고 있

다는 廉氏 및 同行한 上記 兩先生의 말이다. 「咸通」年間이라 하면 唐懿宗 때로서 新羅 景文王代에 該當한다. 實物이 없어 遺憾스러운 일이나 이러한 口傳은 前述한 柱礎石과 함께 이 部落이 羅代의 古刹址임을 確證케 함에 있어 貴重한 一資料가 된다 할 것이다. 圓座柱礎石의 實測値는 (cm) …… 一邊長 六八·一 邊長 五四 圓座內圓徑 三六 高 〇·二 中圓徑 四四·五 高一·五 外圓徑 四八·五 高 〇·四 이다.

二、石佛坐像

邑內에서 上記 基谷部落으로 오자면 洞裏에 들어서기前 藥峴(俗稱 약물재)을 지나게 되는데 路邊左側에 奉安한 坐佛 一軀를 볼 수 있다. 이 石佛의 原位置는 水晶山(註) 西麓으로서 下半이 埋沒되었던 것을 數年前에 平谷里洞民들이 收拾하여 現位置로 移安한 것이라 하는데 그 原位置를 洞民들이나 秀峰國民學校 安先生도 알고 있다. 하기에 現地를 踏查했으나 別다른 遺蹟을 發見하지는 못하였다. 佛像은 砂質이 많은 花崗石이어서 各部의 彫飾에 磨損이甚하며 頭部는 缺失되어 現在는 시멘트로 新造하고 結跏趺座한 兩膝部가 破損되고 兩手도 缺損되었다. 座臺도 없어 現在는 시멘트로 넓은 佛壇을 마련하였다. 右肩偏袒의 法衣는 兩腕에 걸쳐 兩膝을 덮은듯 하나 膝部의 破失로 그 衣文은 볼 수 없다. 造成年代는 胸前의 衣文이나 兩腕部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高麗中期로 推定된다. 비록 完全치 않은 破佛이지만 全혀 記錄도 없는 新資料이기에 簡單히 紹介하여 둔다. 實測値는 (cm) …… 現高 九三、肩幅 六一·五 胸幅 四六 이다.

끝으로 現地調査時 많은 도움을 주신 前記 廉鍾敏氏와 金富年 安孝景 兩先生께 感謝한다.

(註) 陰城邑 東北쪽에 位置하였고 平谷里는 그 南麓의 部落이며 山頂에는 石城이 遺存한다.

「東國輿地勝覽卷六十四(山川) 水精山 左縣東三里.

〔古跡〕「古山城 縣水精山上 石築周一千二百七十一尺 高丈餘 內有一井 今廢城之南有古邑遺址號官坪」을 參照

東院里 石塔內 發見 蠟石製小塔補

李 殷 昌

忠清南道 公州郡 新豐面 東院里 院洞에 三層石塔 一基가 있어 一九六二年 十二月에 解體修理하였는데 이 修理當時 石塔 下底 土中에서 遺物이 出土되어 本誌에 金永培氏의 報告 ①가 있었고 또 이들 遺物中에는 蠟石製小塔 七基가 收拾되어 筆者는 이에 對하여 詳報한 바 ② 있다. 그런데 一九六八年 二月 十四日에 公州博物館에 들렀다가 東院里 三層石塔 地點에서 出土된 蠟石製小塔 一基를 李永樂館長의 紹介에 依하여 一見할 수 있었다.

東院里石塔內 發見 蠟石製小塔 一基가 追加되었으니 前記 七基에 一基記를 加하여 모두 八基에 達한다. 이는 「院洞」部落에 居住하는 村婦가 前 三層石塔 地點에서 發見한 것을 公州博物館長 李永樂氏가 收拾한 것이다. 小塔은 二面만이 殘存하고 二面은 破缺되었는데 現存 實測値는 總高 九cm 이요 第一面 最大幅은 三·八cm이며 第二面 最大幅은 五cm로 되어 있다. 造塔樣式은 基壇部와 二層塔身으로 形成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基壇은 縮少된 方形下石과 廣大한 方形上石으로 構成되었는바 上石에는 上下 二條의 홈(溝)을 橫으로 파서 돌리었다. 塔身은 隅柱가 없는 屋身과 反轉이 없는 屋蓋로서 二層을 만들고 三層은 屋身部만이 있는데 各層 屋蓋는 落水面勾配가 表示되고 檐下는 仰斜面으로 되어 一層級の 屋蓋받침이 線刻되었다. 이 小形塔의 特異點은 ①基壇이 特殊構造를 하였고 ②各層屋身の 高가 낮으며 ③比較的 輕快한 맛이 없고 重厚한 便이다. 이는 石塔을 模作한 것인

